

주일 가족 예배

주일 오전 11시
인도 김용덕 목사

송영		찬양대
예배예의부름		인도자
*첫 찬송	9장 1,2절	다같이
*임재의 기원		인도자
예배 찬송	314장	다같이
교독문	56.시편 128편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오영숙 셀장
성경봉독	요 8:31-32	다같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진리 선택	김용덕 목사
찬양과 봉헌	358장	다같이
소식과 교제		인도자
*주기도송	635장	다같이
*봉헌기도 및 축도		인도자
*일어서서	다음주 기도 이명희 셀장	
	현금 원성연 집사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후 1시 40분

주일 찬양 집회	말은이	
사도신경	다같이	
성경봉독	눅 17:11-19	다같이
특송	베로니카중창단	
말씀	감사, 구원에이르는믿음	이연숙 전도사
찬양	복 385장	다같이
소식과 교제	인도자	
축도	인도자	
다음주 특송 글로리아세션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찬양과 경배	인도자	
사도신경	다같이	
성경봉독	삼상 30:7-9	다같이
말씀	주의 뜻대로	김용덕 목사
소식과 교제	김용덕 목사	
축도	김용덕 목사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찬양인도	제1여전도회
말씀	김용덕 목사
기도회	설교자
	다음주 주관 청년부

새벽 기도 모임

월-금 오전 5시
토/일은 쉽니다

1. 행복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정도옥 사모를 찾아 주세요.

2. 오늘의 주요행사

- 09:30 / 교회학교 예배
- 12:00 / 셀모임 월례회
- 13:40 / 주일찬양집회
- 15:30 / 청년부모임

3. 셀모임

- 도전 1등
- 하루라도 성경을 쉬면 그만큼 하늘 길도 막힌다

4. 성경 들기와 이어쓰기 장소

- 듣기 / 바이블25(앱)
- 필사,이어쓰기 / <https://glory.community>

5. 주간행사

- ①부서별심야기도회(9일)
-제1여전도회
- ②다음 주 행사
-각 위원회
- ③다음 주 담당
-기도 / 이명희셀장
-현금 / 원성연집사
-특송 / 글로리아세션

6. 8월 중 행사계획

- 27일(주) / 당회 권사회

7. 건축위원회 소식

- 건물 토지 등 정보 수집

- 매각 방법과 시점 등 구상
- 절세 방안 등 검토

8. 홈페이지 사진 등록

- 스스로 할 수 있음
- 모르면 주인장께

9. 성경암송대회

- 9월 말 청년부 주관
- 단체톡 60구절

10. 감사소식

- 8월이미허락하신은혜에감사드립니다·2019년여름수련회는혜안에거하게하심을감사드립니다

11. 암송성구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12. 기도제목

- 나라를 위해
- 휴가를 위해

13. 생활속제

- 의지적으로 하나님 선택하기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용덕		
교육전도사	이연숙	출석전도사	이을순
시무장로	정필래	김광자	원덕규
안수집사	가용섭	권영준	
권사	이명희	김성자	문미화
	이은희	윤영주	이경미
	김명순	송화숙	김미애
지휘	김선영		
반주	김옥경	최효신	허준영

위대한 착각

바다를 본 사람은 강을 바다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도 세상 나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속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불행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고 세상 성공을 승리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 하고 말하시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옳음이 아주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이 넘치는 것에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도 가치가 있다 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생각마저도 위대한 착각입니다. 세상은 탈출해야만 할 대상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어 버리 것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칫 거짓 승리의 착각에 빠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겠는지요..? 세상의 성공이 바로 천국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머리보다 하늘나라 꼬리가 월등히 낫습니다. 세상 부자보다 하나님 나라 가난이 더욱 부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참복이어야 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이어야 합니다. 이 분별이 생기지 않았다면 차라리 가난에 소망이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영광의교회 웹 공동체
<https://glory.community>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상설교 김용덕 목사
요한복음 8장 28-30절



그러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 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이마에 인을 치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사단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지긋지긋한 믿음을 보여야만 사단이 떠나갑니다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것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생동안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였던 히스기야도 그 자랑감을 이기지 못하여 끝내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리 하여도 믿음이요 저리 하여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을 몰아내고 승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선한 영들과 늘 함께 하여 사셨기에 외로움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

다.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교통니이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힘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가장 좋은 노후준비인 것은 아시겠는지요?

그러니 믿고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돌부처라고 불리우는 이창호 프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역류가 되는 셈이 되고 나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니 순류 정진하는 것이 항상 해법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흔들어 대는 존재입니다. 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진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하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천군 천사가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늘의 힘을 믿고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며 의지하고 무진동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고백처럼 천사가 내려와 일을 돕습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만큼 세상 일도 풀릴 줄을 믿으시고 정진하시어 많은 풀림을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아직

사랑탐구 173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만일 은혜가 온

전히 이루어졌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니까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이미 받은, 그러나 아직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절제하여 은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죄란 형벌이 따르는 채찍 같은 것이기에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중요한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다고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그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하였습니다. 아, 감사하도다. 나의 죄여!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100% 완전하지만 우리가 이룬 은혜는 아직이니 죄의 게이지를 확인하여 더욱 충만을 도모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니...
요일 3:9

구원자의 선택

순수한 믿음 14

구원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이제 매시간 매분 매초가 선택의 순간들로 이어집니다. 그 선택은 생명과 사망, 위와 아래, 행복과 불행, 자유와 혼돈, 성령과 감각 같은 것들로, 하나님이나 세속이나를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훈련을 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것들만을 선택하고 사는 일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변개할 수 없는 약속, 즉 참복의 땅을 우리에게 열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의식과 죄

우리 내면의 무의식은
항상 죄를 향합니다
하여 의지적으로
저항해 살아야 승리합니다